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계절과 더불어 전국비구니회지(『比丘尼』 제27·28합본호)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증일아함경』 제3권 「비구니품」에는 초기불교 비구니교단의 주요지도자인 담마닌나[曇摩提那, Dhammadinna] 비구니가 등장합니다. 담마닌나는 재가신도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발심하여 아나함과를 성취한 부호 위사카의 아내였습니다. 위사카는 열반에 이르러 고자하는 수행자로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고자 하였지만, 그의 영향으로 일찍이 불교를 알게 되었던 담마닌나는 모든 재산을 사양하고 출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마닌나는 철저한 무소유로 수행에 전념하여 오래지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나서 고향인 라자가하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위사카에게 부처님의 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담마닌나는 명쾌한 답변으로 그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미 담마닌나는 대지혜를 이룬 현자가 되었다. 내게 물었더라도 그와 같이 답하였을 것이다.”라 하시며, 담마닌나를 높이 평가하여 수행자들 앞에서 늘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전에서는 담마닌나를 ‘진리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 모든 법을 부분별로 널리 설하는데[分別義趣 廣說分部] 제일인 비구니’, 또는 ‘묘법을 방편으로써 알기 쉽게 잘 설명하는데[能於妙法 善巧敷宣] 제일인 비구니’라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구니품」에는 수행에 전념하여 등과한 50여명의 비구니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탄생한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싯달타태자를 길러주신 이모 구담미와 아난의 간곡한 청으로 어렵사리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수행자가 된 대애도비구니를 모태로 하여 수많은 비구니가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비구니스님들은 세계적으로 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구니 전문 강원과 선원이 있고, 비구니 별소계단(別所戒壇)을 운영하여 계맥을 이어가는 점이라든가 종단의 입법기관이자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와 종단의 집행부서인 총무원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점 등으로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이와 같이 정립되기까지는 그동안 묵묵히 수행과 포교에 전심전력한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로비구니스님들의 놀라운 수행력은 오늘날의 한국비구니를 있게 한 초석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에 결성된 우담바라회를 토대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원력과 화합으로 마침내 회관건립이라는 대작불사를 이루어 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담바라꽃을 피우기 위하여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포교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 후원금 1억 776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소식은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사부대중의 사명으로 알고, 지난해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선포식 이후 전국비구니회 차원에서 모연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전달될 1억원은 전국비구니회 중진스님들의 모임인 목련회가 후원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이같은 일은 비구니스님들을 주축으로 하여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이 이루어낸 동체대비·자리이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종교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감을 일깨우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널리 실현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세계일화를 꽃피우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비구니회지의 발간을 거듭 축하하면서 회지 발간에 힘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